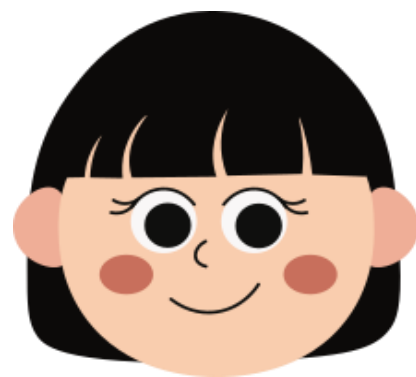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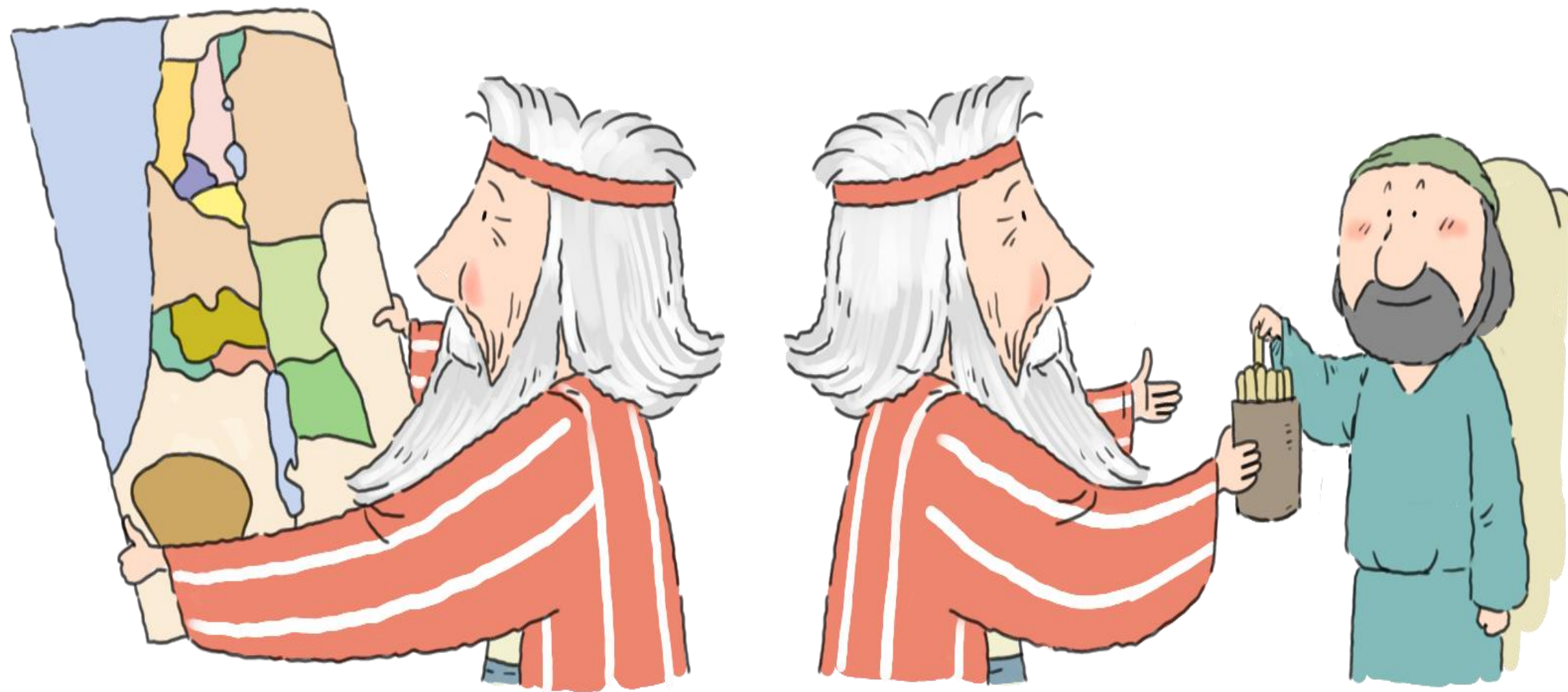


공평하게 나누었어요

민수기 35장 1-8절

다른 친구들은 다 선물을 받았는데,
나만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섭섭한 적이 있나요?





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가나안 땅을 나누어 가질 거예요.



하나님은 열두 지파에게 각자 받은 땅에서
레위 지파가 살 성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.
또 성 둘레에 풀밭도 주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
가축도 키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.

레위 지파는 성 마흔 여덟 개를 받았어요.
그중에서 여섯 개는 도피성으로 정했는데,
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해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곳이에요.





레위 사람은 **하나님**을 섬기는 **특별한** 일을 맡았어요.

레위 사람은 이제 열두 지파가 받은 땅에 **흠어져** 살면서,
먹고 사는 걱정을 모두 다 **하나님께 맡기고**
오로지 **하나님의 일**을 위해 **정성과 노력**을 다할 수 있었어요.





우리가 받은 것을 친구와 이웃들에게
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?